

오뚜기 탐방노트

●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품목별 매출 추이

전년 1, 2월 대비 올해 1, 2월 전사 로우싱글 증가
 조미식품류 두 자리수 증가. 특히 3분류 식초 증가. 카레는 소폭 감소
 소스류 두 자리수 증가. 마요네즈가 성장 기여
 수산물류(참치, 미역, 다시마 등) 두 자리수 증가. 참치가 두드러지게 증가
 면류 하이싱글 감소. 작년 초 베이스로 인한 라면 감소
 쌀류 두 자리수 증가, 유지류 하이싱글 감소
 냉동식품류 두 자리수 증가. 냉동피자 1월 30억원, 2월 40억원으로 성장세 유지

품목별 점유율(중량기준). 출처는 닐슨이고 샘플스토어가 바뀌어 점유율의 소폭 변경 있음

라면
 16년(연간, 월별단순평균) 오뚜기 23.0, 농심 53.9, 삼양 10.7, 팔도 8.7
 12월(이하 바뀐 후 점유율) 오뚜기 25.9, 농심 54.2, 삼양 10.7, 팔도 6.6
 1월 오뚜기 25.5, 농심 54.2, 삼양 10.7, 팔도 7.0
 2월 오뚜기 25.2, 농심 53.1, 삼양 11.6, 팔도 7.2

참치
 16년 오뚜기 12.3, 동원 67.6, 사조 19.0
 1월 오뚜기 10.4, 동원 69.9, 사조 16.4
 2월 오뚜기 12.4, 동원 66.9, 사조 19.4

카레
 16년 오뚜기 80.3, 대상 12.4
 1월 오뚜기 80.6, 대상 11.8
 2월 오뚜기 78.7, 대상 13.8

밥
 1월 오뚜기 33.1, CJ 63.0, 동원 1.2
 2월 오뚜기 35.4, CJ 60.6, 동원 1.4

유통채널별 추이

대형할인점/농협/백화점 하이싱글 감소. 매출비중 27%
 편의점/대형슈퍼 등 두 자리수 초반 증가. 매출비중 20%
 대리점 미드싱글 감소. 매출비중 20%
 수출 두 자리수 초반 증가. 매출비중 3%. 나머지 비중은 식자재, 급식, 제과제조업체(기름), 군납

기타

전년 1, 2월 대비 광고선전비 두 자리수 초반 감소. 지급수수료 등 소폭 증가. 3월 지켜봐야함

라면 마진 낮지만 라면비중 줄어도 영업이익 안오름. 곡물로 인해 원가율 소폭 증가
 매출에너리는 동기대비 플랫폼. 주요 원재료는 대두유, 쌀, 참치, 참깨, 팜유, 설탕, 주정, 물엿
 대두유 1Q16 120억원, 2Q16 120억원, 3Q16 130억원, 4Q16 140억원 투입
 15년 기준 쌀 600억원, 대두유 520억원, 팜유 250억원, 참깨 230억원, 참치 200억원 투입

라면 생산라인 여분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부사항은 잘 모름 (오뚜기라면 소관)
 라면 판매액 16년 5,100억원, 진라면이 1,600억원

쌀은 농협 등에서 조달하는데 공급이 많아 문제 없음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3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 (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3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3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